

# 大學圖書館의 組織論에 關於 考察

姜 俊 浩  
(國 會 圖 書 館)

## 目 次

- |                   |                       |
|-------------------|-----------------------|
| 1. 序 言            | 4. 中央圖書館(本館)과 分館과의 關係 |
| 2. 大學圖書館의 組織論     | 5. 結 言                |
| 3. 大學圖書館과 大學과의 關係 |                       |

## 1. 序 言

組織의 概念에 關하여서는 많은 學者들이 각기 相異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 實로 群盲이 巨象을 더듬는 格으로 大體로 組織의 一面만을 각기 強調하여 왔다.<sup>1)</sup> 例컨데 「사이몬」 H.A. Simon은 組織을 “넓게 意味에서 集團行動의 型態<sup>2)</sup>라고 하였으며, 「무늬」 J.D. Mooney는 組織을 共通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한 모든 人間團體의 方式<sup>3)</sup>이라고 하여 組織을 純粹한 過程으로 보고 따라서 靜態的인 同時에 動態的인 概念으로 看做하고 있다. 또 「바아나아드」 C.I. Barnard는 組織을 “2人 以上の 사람이 意識적으로 調整된 活動 또는 勢力의 體系”라고 하고 組織의 要素로서 意思傳達, 寄與의 意慾(Willingness to serve) 共通 目的의 存在 등 세가지를 들고 있다. 그는 組織의 心理的 要素를 重視하고 共通 目的 達成을 위한 活動에 對한 個人의 動機와 組織側의 誘因(incentive)과의 動機的 關係를 強調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sup>4)</sup> 또 「파슨스」 T. Parsons는 組織을 “어느 限定된 目標의 達成에 第一義적으로 指向하고 있는 社會體系”이다라고 하여 要컨데 組織을 特定目標 達成을 위한 地位와 役割의 體系로 보고 있는 것이며<sup>5)</sup> 「가우스」 J.M. Gaus는 組織을 “여러 機能과 責任의 分配를 통하여 어떤 合意된 目的의 遂行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職員의 配置이다.”<sup>6)</sup>라고 하였으며 「랑로드」 George Langrod는 “組織은 共通的인 目標를 遂行하기 위하여 所定된 機構內의 各 相異한 階層에서 協同하고 一聯의 相異한 構造的 그리고 機能的 紐帶에 의하여 結合된 集團과 個人間의 相互關係의 體系的 配置이다.”<sup>7)</sup>라 하여 前記한 「파슨스」나 「가우스」教授의 見解와 거의 一致한다.

以上 諸教授의 見解는 組織概念規定의 決定的 要因으로서 「共通目的」과 「業務分配」 division of work와 「調整」 coordination 또는 地位와 役割의 體系를 強調하였다.

이와같이 大學圖書館의 組織도 上記 諸教授들

1) 行政論叢 第3卷 第1號 Vol. III, No. 1 1965,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pp.1-5.  
2) H.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1955, p.100.  
3) James D. Mooney;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1947, pp.1ff.

4) C.I.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1960, pp.69-73, 81, 82.  
5) T. Parsons; The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y, 1960, p.17.  
6) John M. Gaus, L.D. White & M. Dimock; The Frontiers of Public Administration, 1936, p.67.  
7) Georges Langrod; Science et Enseignement de L'administration Publique, Revue (1954) p.290.

의 組織概念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共通目的」과 「業務分配」와 「調整」이 잘 되어 있어야 圖書館機能을 잘 發揮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大學圖書館 組織論의 問題를 外國大學의 圖書館組織에서 찾아 보고 우리의 大學圖書館組織의 方向을 찾아 보자는데 있다.

## 2) 大學圖書館의 組織論

大學圖書館의 組織을 組織의 類型으로 보면 適應組織(Adaptive Organizations)에 該當되며 大學圖書館의 組織이 組織論上 問題로 提起되는 것은 內部組織論과 外部組織論 등 2個의 問題를 提起할 수 있겠다.

內部組織論은 한개의 單位圖書館의 內部組織을 어떻게 하여야만 좋을 것인가 하는 組織論이다.

外部組織論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大學圖書館과 母機關인 大學과의 關係이다.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은 그 目的機關이며, 手段機關이 아니요, 中心機關이며 周邊機關이<sup>8)</sup> 아니건만 모든 大學은 圖書館을 “附屬” 機關으로서 設置하고 있다. 이 “附屬”이라는 機關으로 母機關인 大學과 連結되어 온 우리의 大學圖書館으로서는 大學과의 關係가 너무나도 明白한 것이라 問題點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는 實情이다. 그러나 大學圖書館과 大學과의 “附屬”이라고 부르는 關係는 國際적으로 볼 경우 결코 普遍的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問題를 明白한 것이라 아무 의문없이 지나치지 말고 한번 研究해 볼 必要性이 있을것 같다. 두번째는 한 大學內에 몇개의 圖書館 또는 圖書室이 있을 경우 이들간의 組織은 어떻게 하여야만 되는가 하는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中央圖書館(本館)

과 分館, 또는 科別圖書室과의 關係의 問題로 取扱되어 우리는 한번도 論議되어 본 일이 없으나 이웃 日本에서는 종종 論議되어 왔다고 한다.

한 大學內에 몇개의 單位圖書館이 모여 하나의 시스템(System)을 만들고 있다고 할 경우 그 構成單位가 되고 있는 圖書館으로 볼때 그 시스템(System)은 外部組織이 되지만, 시스템(System)全體로서 볼 때에는 그것은 內部組織이다. 따라서 한 大學內의 시스템(System)으로서의 圖書館組織論은 大學과 圖書館과의 外部組織論과 한 圖書館內의 內部組織論의 中間에 位置하는 組織論이다.<sup>9)</sup>

오늘날 大學圖書館에 對해서 內部組織論이 거의 論議된 일이 없었던 것은 圖書館의 規模가 一般的으로 적었고 따라서 組織도 極히 單純했기 때문에 論議의 對象이나 組織論上 問題가 될 것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大學內에 있어서의 圖書館位置定立問題와 圖書館長權限擴大 등 外部組織에 關聯된 問題가 오늘날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問題였기 때문에 內部組織論까지 學論하지 못한 實情이 중요한 要因인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는 外部組織論과 같이 研究 檢討되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 3) 大學圖書館과 大學과의 關係

大學圖書館의 母體機關인 大學自體가 요즈음 계속 急激하게 變化하고 있는 點이 많이 눈에 뜨인다. 1972年 10月 美國「라신」市에서 開催된 第2回 美日大學圖書館會議에서 採擇된 最終 코뮌니케(Communiqué)도 “70年代의 10年間の 大學 研究圖書館에 의하여 奉仕하는 教育組織이 끊임 없이 急激한 變化를 받고 있는 時期로서 特徵지

8) 玄勝鍾, 國家發展上의 圖書의 役割, “出版文化” 1973年 7月號 p. 6.

9) 岩猿敏生 大學圖書館 組織論 “圖書館界” 第25卷 第4號.

워질 것 같다. 그래서 이들 圖書館은 끊임없이 새로운 狀況에 適應해 가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急激한 變化가 무슨 일인가에 對해서는 보는 사람의 立場에 따라 各己 여러가지로 말해지지만 大學自體가 急激히 變化해 갈때 그것에 直接奉仕해야 할 大學圖書館도 自身과 大學의 關係를 다시 한번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組織은 그것이 組織되어야 할 共通目的(目標)을 가지지만 그 組織目的을 達成하는데 보다 效果的인 組織을 가질때 그 組織의 效率(成果)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當然한 理致이다. 왜냐하면 어느 程度 組織內의 能率이 좋아도 組織全體로서 組織目的인 機能을 充分히 成就하지 못하면 그 組織의 效率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大學圖書館과 大學과의 關係는 “附屬”이라는 形態를 취하고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國立圖書館이나, 市立圖書館 등의 機能을 公적으로 遂行하는 일은 우리의 大學圖書館에서는 없다. 日本의 大學圖書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西洋의 大學圖書館의 狀況을 보면 大學과 大學圖書館과의 關係는 여러가지 形態가 있다. 그것이 또 直接으로 大學圖書館의 外部組織과 內部組織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는 實情이다.

西洋의 大學圖書館의 形態를 類型別로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㉞ 1) 大學圖書館이 母體機關인 大學에만 所屬되는 型(附屬型)

우리나라나 日本의 大學圖書館이 이 型에 屬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事實이지만 西洋에도 이것과 비슷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즉 英國과 美國의 大學圖書館이다.

英國의 大學圖書館에 對한 有名한 3과리 報告(Parry Report)에 “이 나라에서는 圖書館은 大學이 認識하는 一部이며, 모든 點에 있어서 大學

과 密接하게 統合되어 있다. 그 財政은 大學의 一般 資金으로 부터 處理되고 大學自體와 마찬가지로 外部의 機關으로 부터 獨立하고 自律적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美國에 있어서도 事情은 英國과 대동소이 하다.

### ㉞2) 大學圖書館이 母體機關인 大學으로 부터 獨立되었거나, 또는 同時에 다른 圖書館 機能을 遂行하는 型

韓國이나 日本 또 英國과 美國의 大學圖書館처럼 大學에만 所屬하고 大學以外의 다른 機關으로 부터 自律的인 型과는 달리 大學圖書館이면서 管理的인 것은 大學으로 부터 獨立하고 때로는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다른 圖書館의 機能도 遂行하는 型이다. 이것은 유럽大陸의 여러나라의 大學圖書館에서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型이다. 이 경우 大學圖書館은 大學으로 부터 獨立性이 强하기 때문에 學部, 研究所, 研究室에는 그곳의 教育 研究에만 奉仕하는 學部, 研究所 研究室圖書館이 發達하고 이들의 圖書館은 一般的으로 教授에 依하여 管理된다. 따라서 유럽大陸 모든 國家의 大學에서는 大學圖書館과 學部 研究所등에 直屬하는 圖書館과의 關係가 極히 중요한 問題로 등장된다. 그런데 이런 型의 大學圖書館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第 1型 大學圖書館이 國立圖書館이며 大學自體로 부터 管理的인 것은 獨立하지만 오로지 大學圖書館으로서만의 機能을 하는 圖書館이다. 이 型에 屬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의 大學圖書館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大學에서 大學圖書館이 責任을 지는 것은 프랑스 文部省 圖書館局(Directio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Ministère de L'Éduca-

10) University Grants Committee, Report of the Committee on Libraries. London, H.M.S.O., 1968, p.6 이 報告書는 委員長 Thomas Parry이름을 따서 一般的으로 Parry Report라고 부르고 있다.

tion Nationale)이며 大學에 對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大學自體의 管理下에 있는 것이 아니고 國立圖書館이나 市立圖書館 등과 같이 文部省 圖書館局의 管轄下에 있다. 더구나 大學圖書館에 對한 中央政府의 直接的인 管轄이 圖書館의 立場에서 본다면 圖書館豫算이나, 職員(司書) 또는 技術的인 問題 등에 있어서는 圖書館이 오히려 有利한 點이 많을 듯 하며 그것에 依하여 “大學圖書館은 이제 大學의 貧困한 親戚이 아니다<sup>11)</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이탈리아의 大學圖書館은 모두 國立圖書館이지만 다른 國立圖書館과는 달리 大學의 教育, 研究를 援助하는 國立圖書館이다. 管轄은 文部省이며 人事도 다른 國立圖書館과 함께 全國規模의 競爭 試驗으로 採用되고 圖書館長도 直接文部省에 依하여 任命된다.<sup>12)</sup>

스페인의 大學圖書館도 文部省의 Director General of Archives and Libraries에 依하여 管理되고 圖書館長은 大學에 對해서 圖書奉仕, 開館時間, 休暇 등과 같은 運營面에 있어서만 責任을 질뿐이다.<sup>13)</sup> 그러나 스페인의 大學圖書館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大學圖書館과 다른 點은 學科나 研究所 등의 圖書館藏書도 모두 大學圖書館에 속해 있다는 點이다.<sup>14)</sup>

第 2型은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市立圖書館이나 州立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는 型이다. 이 型에 屬하는 나라로는 西獨과 오스트리아의 大學圖書館이다. 이들 나라에 있어서도 大學 圖書館은 大學에 附屬되어 있지만 教授의 權限下

에 있지 않는 하나의 州立機關이며 西獨全體의 州立圖書館이나 市立圖書館으로 만들어진 組織의 一部分이다. 그래서 Wehmer는 西獨의 大學圖書館은 “大學과 公共領域과의 境界의 位置에 놓여져 있다. 마치 大學病院과 마찬가지로 教授와 學生뿐만 아니라 모든 市民에게도 꼭 같은 奉仕를 하는 機關이다.”<sup>15)</sup>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西獨의 大學圖書館은 大學圖書館이면서 同時에 州立이나 市立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하며 또 名稱自體에 이러한 役割을 明確하게 나타내는 것도 많다. 예를 들면 Köln大學 圖書館의 正式名稱은 Die Universitäts und Stadthibliothek Köln이며 Frankfurt am Main의 그것도 Stadt und Universitätsbibliothek이다. 또 Hamburg 大學圖書館은 Die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 Hamburg이며 Göttingen의 그것은 Die Niedersächsische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이다.<sup>16)</sup>

오스트리아의 大學圖書館도 이 型에 類似하다. 예를 들면 Die Universitätsbibliothek Grag의 利用規則에 “크라츠大學圖書館은 스타이 엘마큰州에 對한 學術的인 調查研究를 도우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 또 그라츠大學에 對한 調查, 教育, 研究에 對한 圖書館의 責任이 優先하지만 그 위에 一般教養, 職業上의 訓練 또는 事實에 關係되는 情報를 얻도록 하여 誠實하게 研究하는 것에 援助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sup>17)</sup>

第 3型은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國立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는 型이다. 즉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國立圖書館이다. 또 國立圖書館인 同

11) Poindron, Paul. Franch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Trends. 12(4) April 1964, p. 530.

12) Gerevini, Silvano, The Organization and Problems of University Libraries in Italy. Library Trends, 12(4), April 1964, p. 551.

13) Lasso de la Vega, Javier. University Libraries in Spain and Portugal. Library Trends. 12(4), April, 1964, p. 539.

14) Op. Cit, p. 543.

15) Wehmer, Carl. The Organization and Origins of Germa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Trends. 12(4). April, 1964, p. 496.

16) 岩猿敏生 西獨의 大學圖書館 “天野敬太郎先生古稀記念論文集” 昭和 46年 (1971年) p. 1474.

17) 上掲論文 p. 1423.

時에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 이 型에 屬하는 國家로는 前者인 경우는 挪웨이와 핀란드이고 後者의 경우는 스웨덴과 덴마크이다.

挪웨이의 Oslo大學圖書館 또는 핀란드의 Helsinki大學圖書館은 大學圖書館인 同時에 法으로 定해진 國內出版物의 寄託圖書館이며 全國 雜誌를 編纂하여 제각기 國家의 國立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다 한다. 이것에 對하여 Gopenhagen과 Stockholm의 王立圖書館인 덴마크國立圖書館 또는 스웨덴 國立圖書館은 國立圖書館으로서의 機能外에 제각기 Gopenhagen大學 또는 Stockholm大學의 大學圖書館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는 國立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이 緊密히 連結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그 類型을 볼 수 없는 型을 이루고 있다.<sup>18)</sup>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大陸 여러나라의 大學圖書館에서는 大學으로 부터의 獨立性이 强해서 그 大學의 科別 研究所 등의 圖書館과의 關係가 極히 중요한 問題가 되지만 한편 大學圖書館이 大學自體에 依하여 管理되는 일이 적고 極히 公共的인 性格을 갖기 때문에 全體的인 協力 關係를 유지하기 容易하다는 利點이 있다. 이런 것에 比하여 韓國이나 日本, 英國과 美國 등의 大學圖書館의 類型에서는 大學圖書館과 大學과의 關係는 緊密하지만 그 만큼 大學圖書館 自體의 自律性이 弱해지고 유럽적인 協力組織을 만들기가 困難하게 된다. 그러나 英國과 美國에서는 韓國과 日本과는 달라서 大學圖書館의 館長은 專任의 圖書館員(司書出身)이며 圖書館協會를 先頭로 圖書館間의 組織이 確立되어 있어서 大學圖書館이 그의 母體機關인 大學으로 부터 統制받는 것을 어느 程度 防止하고 있다.

18) Tveteras, Harald L. Scandinavian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ies. Library Trends, 12(4), April, 1964, 1964, p.481.

## 2) 4) 中央圖書館(本館)과 分館과의 關係

中央圖書館과 分館과의 關係를 日本大學圖書館의 組織에서 檢討하여 보면 한 大學內에 있어서 圖書館 組織의 單位가 되는 個個의 圖書館으로 볼 때는 外部組織의 問題가 되고 한 大學內의 圖書館 全體를 한개의 시스템으로 볼 때는 內部組織의 問題가 된다.

1949年 5月 “國立學校設置法”이 公布되어 1縣 1國立大學이라는 原則下에 그 當時의 各種 高等 專門學校를 비롯하여 舊制 高等學校를 單科大學이나 舊帝國大學과 合併하여 새로운 高等教育機關으로 즉 新制大學이 全國 各縣에 設立되었다. 그러나 처음 대부분의 大學은 校舍도 統合되었고 따라서 圖書館組織도 重複이 되어 어디에다 中央圖書館을 두는 것이 最善의 方法인가에 對한 격심한 論爭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1952年 11月에 文部省에 依해 出版된 “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과 그 解說”에 中央圖書館과 分館과의 關係는 大學圖書館行政中에서도 가장 어려운 問題中の 하나”라고 指摘하고 양자의 關係를 明確하게 함으로서 “藏書의 管理와 整理面에 있어서의 能率과 經濟的이며, 同時에 圓滑한 全校的 利用이 期待되는 點도 當 改善要領에는 特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記述하였다.)

新制大學이 設立된 後 各 國立大學의 圖書館 組織은 원래 제각기 發展하여 온 몇개의 圖書館을 中央圖書館(本館)과 分館 또는 科別圖書室로 組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後 國立大學圖書館關係者의 努力에 依하여 大學 全體의 圖書館 組織은 本館과 分館 또는 科別圖書室로 차례 차례 整備되고 있었지만 그 組織에는 各 大學의 歷史를 反映하는 몇개의 型이 있었다.

「澤本孝久」씨는 1965年 부터 1967년까지 國立, 公立, 私立등의 各 大學圖書館組織에 對해서 調

査를 하였다. 이 調査에는 5個의 基本型和 이들 基本型 사이의 混合型, 또는 中間型으로 8個의 派生型을 區別하고 있다.<sup>19)</sup>

基本型的 第 1型은 1大學 1圖書館의 單一型으로 分館, 科別圖書室은 없는 것이다. 第 2型은 分館制를 取하지 않고 科別圖書室은 모두 各 本館으로 부터 獨立하고 있는 典型的인 分散型이다. 第 3型은 本館, 分館制를 取하지만 本館에는 事務部만 있고 整理나 閱覽등의 圖書館業務는 本館이 遂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過渡期的 型態라고 「澤本」씨는 말하고 있다.<sup>20)</sup> 第 4型은 本館, 分館制를 取하고 있으나 分館職員은 分館長에 속하고 本館 事務長의 統率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形式的으로는 集中制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分散制이다. 第 5型은 本館, 分館制로서 分館의 職員도 本館에 속하며 그 意味로서는 完全한 集中制이다. 以上の 基本型外에 中間型 또는 混合型이 있어 「澤本」씨는 各 型마다 大學 圖書館數를 一覽表로 整理하고 있다.

日本の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外部組織의 問題는 特히 國立大學의 경우 戰後 몇個의 大學 또는 몇 學校의 合併이라는 特殊한 歷史的 事情에 依하여 提起된 것이다. 본래 獨立해 있던 몇개의 圖書館을 하나의 大學圖書館으로 組織하려고 할 경우 集中制가 目標로 意圖될 것은 當然하다. 1952年의 “國立大學改善要項”이 集中制를 基調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背景에 依한 것이다. 따라서 分館은 地域的으로 分散해 있는 경우에 限해서 設置를 認定하였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의 發展과 함께 그 內部組織과 마찬가지로 外部組織으로서의 大學全體圖書館組織도 分化하지 않을 수 없다. 1966年 3月 文部省管理局教育施設部가 發表한 “大學圖書館施設計劃要項”에서는 分

館 또는 科別圖書室의 設置條件으로 ① 大學의 數地가 分散해 있는 경우 ② 科의 數가 많고 圖書館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不正當한 경우 ③ 大學全體的 規模로서 科의 限界를 넘는 部門別 또는 機能別의 圖書館을 두는 것이 適當할 경우 등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集中制와 分散制라고 하는 경우 管理面의 集中 또는 分散의 問題뿐만 아니라 資料의 集中分散의 問題도 있다. 集中과 分散의 問題를 資料와 管理의 兩面으로 接近해 가는 方法은 일찍의 英國의 「Parry」報告에서도 言及이 있었지만<sup>21)</sup> 2個의 面으로 부터 集中과 分散을 생각하면 다음의 세가지 型을 基本型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1型—管理도 資料도 集中…集中制 2型—管理는 集中, 資料는 分散…一部集中制, 3. 型—管理도 資料도 分散…分散制 등이다.

## 5) 結 言

組織은 어떠한 組織이라도 變化 成長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組織도 大學과 같이 急激한 變化는 못한다 하더라도 變化를 가져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檢討한 外國 大學의 組織이 다 우리의 大學圖書館組織 보다 優越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現在 우리의 大學圖書館 組織은 建物에 比하여 너무나 規模가 적고 單純하기 때문에 組織論上 問題點이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母體機關인 大學에 比較하면 너무나 貧弱하므로 組織 目標에 到達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大學圖書館 組織도 急激한 大學의 變化에 步調를 맞출 수 있도록, 즉 環境에 適應力있는 大學圖書館 組織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19) 澤本老久, 日本の 大學圖書館組織の 比較研究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 1968, pp. 179-204.

20) 上掲書 p.183.

21) University Grants Committee. Report of the Committee on Libraries. London, M.M.S.O., 1968 pp.92-93.